# 農家人口 및 農家就業構造의 變化

朴 烜 求

▷目 次◁

Ⅰ. 序 論
Ⅱ. 農家人口의 變化
Ⅲ. 經濟活動과 就業構造의 變化
Ⅳ. 農業就業者의 變化와 展望
Ⅴ. 要約 및 結論

## Ⅰ. 序 論

工業化를 통한 經濟成長過程에서 農業部門의 人口 및 生產規模의 상대적 縮小現象은 當然한 結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Lewis 등에 의해서 展開된 無制限勞動供給과 經濟成長의 理論에 따르면[1] 經濟成長은 生產性이 낮은 農業部門을 위시한 傳統部門(traditional sector)으로부터 生產性이 상대적으로 높은 工業部門을 포함한 近代部門(modern sector)으로의 勞動移動을 통해 經濟의 生產規模가 擴大되고 國民 1人當 生產量 및 所得의 增大가 이루어지는 過程으로 要約된다.

우리나라도 그간의 經濟成長過程에서 農業部門의 人口가 빠른 속도로 非農業部門으로 옮겨갔고 이에 따라 農家人口의 絕對値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農家人口가 總人口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크게 감소하여 1981年에는 총인구의 약 26%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變化는 그동안에 빠른 속도로 推進, 工業化에 필요한 人力을 供給하는 데 큰 寄與를 하였으며 制限된 農地에 投入된 과잉농업인구를 縮小시켜 戶當耕地面積을 점차 增大시킴으로써 農家所得을 向上시키는 結果를 보였다. 그러나 農村人力의 流出이 靑少年層을 포함한 生產年齡層을 中心으로 이루어진 때문에 農村勞動力의 量的·質的 構造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農村 및 農業部門의 自主的·創意的 發展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農村人口의 變化가 가져오는 각종 결과가 社會·經濟的으로 重要한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農村人口의 移動에 관해 상당수의 硏究

筆者 : 韓國開發硏究院 副硏究委員

1) W.A. Lewis (1954) 참조.

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硏究의 焦點이 大部分 人口學的 側面에서 다루어진 느낌이다[2]. 그러나 農家人口의 變化에 관하여 問題를 觀察하는 각도를 農村地域과 農村人口의 就業機會 및 雇傭構造, 産業으로서의 農業의 勞動力 需給과 農村地域의 餘他部門으로의 勞動力提供度 등에 맞춘 硏究는 充分하지 못하다[3].

本硏究에서는 農家人口, 農家就業構造, 農業勞動力의 需要, 農家所得 등의 諸變數를 有機的으로 檢討分析하여 아래의 몇가지 課題에 대한 나름대로의 答을 얻어보려고 한다.

첫째, 農村人口의 감소가 지금까지 어떤 形態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變化가 意味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한 앞으로 農家人口에 대한 長期的인 政策方向은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둘째, 지금까지 農家人口의 經濟活動과 就業構造는 어떤 形態로 변화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農家所得構造의 特徵은 무엇인가, 또한 現在의 農家就業構造에 비추어 政府가 推進中인 農村就業構造의 多邊化를 통한 農家所得의 增大政策이 農家勞動力의 活用의 側面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세째, 産業으로서의 農業의 就業者數는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變化하였으며 그러한 變化를 決定짓는 主要因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앞으로 農業勞動力의 需要는 어떻게 變化할 것이며 이는 農家人口의 變化趨勢와 비교해서 勞動力의 需給上 어떠한 問題가 예측되는가, 또한 이러한 問題에 대한 政策方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課題의 檢討를 試圖함은 農業 및 農家人口, 農家所得의 諸問題를 人力 및 勞動市場의 觀點에서 分析한다는 方法論에 있어서도 그 意味를 찾아 볼 수 있겠으나 나아가서 本硏究를 통하여 現在 政府가 의도하고 있는 農家所得構造改編施策, 大都市人口集中抑制施策, 農業機械化施策, 農村工業化施策 등의 主要關聯政策課題에 대한 人力側面에서의 基礎資料를 提示할 수 있다는 데에서도 本硏究의 意義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Ⅱ. 農家人口의 變化[4]

우리나라의 農家人口는 工業化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年代 후반부터 계속 감소하여 왔다. 農家人口는 1967年에 頂點에 달해 약 1,600萬名의 수준이었으며 그후 꾸준히 감소하여 1975年에는 1,324萬名, 1981年에는 999萬名에 이르렀다(表 1 참조). 이러한 農家人口의 감소추세에 따라 農家人口가 總人口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꾸준히 감소하여 1970~81年

2) 尹鍾周(1974), 金大泳・李効求(1976), John E. Slovoda(1981) 참조.

3) 金信福(1981), 朱宗桓(1981) 참조.

4) 本硏究에서 引用되는 農家人口統計는 農水産部의 標本調査에 의해 推計된 것임. 農家人口는 흔히 使用되는 市部・郡部 人口統計와는 別個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일정한 定義에 의한 農家의 범주에 속하는 家口의 모든 인구를 나타냄. 農家人口의 推計는 農水産部의 農家人口調査와 經濟企劃院의 經濟活動 및 就業人口 統計에서 별개로 이루어지는데 經濟企劃院의 統計에서는 14歲以上의 農家人口만이 公表되고 있음. 1979年의 경우 14歲以上 農家人口는 農水産部에 의하면 7,423千名이나 經濟企劃院의 推計에 의하면 8,269千名으로 두 가지 推計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本硏究에서는 總農家人口의 경우 農水産部 推計를 使用하였으며 農家人口의 經濟活動分析에는 經濟企劃院의 推計를 사용하였음.

사이에 50%에서 26%로 떨어졌다.

農家人口의 감소와 더불어 農家家口數도 계속 감소하였다. 즉, 農家人口가 頂點에 이른 1967年에 258萬 世帶이었던 農家家口數는 1981년 203만 세대로 감소하였음을 〈表 1〉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農家家口數의 감소는 農家人口의 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로 진행되었다. 1981年의 農家人口가 1967年의 農家人口의 62.2%임에 비해 1981年의 農家戶數는 1967년의 78.4%이다. 물론 그동안 農村地域의 出生率低下로 戶當平均家口員數가 감소된 데에서도 이러한 現象의 原因을 찾을 수 있겠으나 또하나의 중요한 原因은 지금까지의 離農이 家族單位를 中心으로 한 離農의 形態라기보다는 青少年을 中心으로 한 個人別 離農의 形態가 큰 比重을 차지하여 왔다는 점이다.

〈表 1〉 農家人口 및 家口數의 變化

(단위 : 千名, %)

| | 農家人口 | 人口比重 | 農家家口 | 家口比重 | 戶當農家人口 |
|---|---|---|---|---|---|
| 1963 | 15,266 | 56.0 | 2,416 | 50.9 | 6.33 |
| 1964 | 15,553 | 55.6 | 2,450 | 49.7 | 6.35 |
| 1965 | 15,812 | 55.1 | 2,507 | 48.9 | 6.31 |
| 1966 | 15,781 | 53.6 | 2,540 | 47.7 | 6.21 |
| 1967 | 16,078 | 53.4 | 2,587 | 47.0 | 6.22 |
| 1968 | 15,908 | 51.6 | 2,579 | 45.1 | 6.17 |
| 1969 | 15,589 | 49.4 | 2,546 | 43.0 | 6.12 |
| 1970 | 14,422 | 45.9 | 2,483 | 40.4 | 5.81 |
| 1971 | 14,712 | 44.7 | 2,482 | 39.1 | 5.93 |
| 1972 | 14,677 | 43.8 | 2,452 | 37.5 | 5.99 |
| 1973 | 14,645 | 42.9 | 2,450 | 36.4 | 5.98 |
| 1974 | 13,459 | 38.8 | 2,381 | 34.3 | 5.65 |
| 1975 | 13,244 | 38.2 | 2,379 | 33.3 | 5.57 |
| 1976 | 12,785 | 35.7 | 2,336 | 31.8 | 5.47 |
| 1977 | 12,309 | 33.8 | 2,304 | 30.5 | 5.34 |
| 1978 | 11,527 | 31.1 | 2,224 | 28.6 | 5.18 |
| 1979 | 10,883 | 28.9 | 2,162 | 27.1 | 5.03 |
| 1980 | 10,831 | 28.4 | 2,156 | 26.0 | 5.02 |
| 1981 | 9,993 | 25.8 | 2,029 | 25.2 | 4.93 |

資料 : 農水產部, 『農林統計年報』, 各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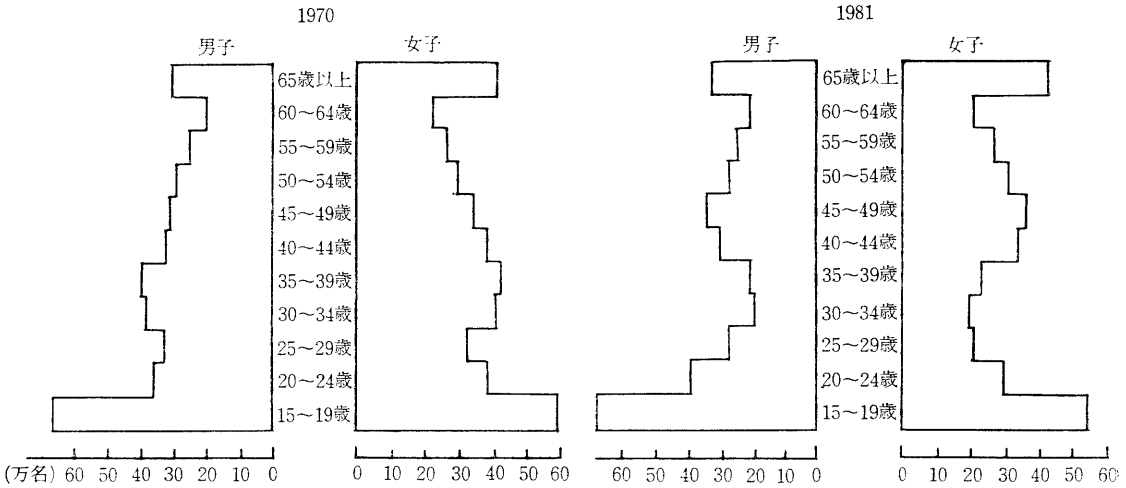
〈表 2〉 農家人口構造의 變化

(단위 : 千名)

| | 1970 | | | 1981 | | |
|---|---|---|---|---|---|---|
| | 總農家 | 男子 | 女子 | 總農家 | 男子 | 女子 |
| 合計 | 14,422 (100.0) | 7,164 (100.0) | 7,258 (100.0) | 9,993 (100.0) | 5,000 (100.0) | 4,993 (100.0) |
| 14歲以下 | 6,518 (45.2) | 3,364 (47.0) | 3,154 (43.5) | 3,255 (32.6) | 1,677 (33.5) | 1,578 (31.6) |
| 15~19 | 1,250 (8.7) | 664 (9.3) | 586 (8.1) | 1,216 (12.2) | 663 (13.3) | 553 (11.1) |
| 20~29 | 1,403 (9.7) | 691 (9.6) | 712 (9.8) | 1,154 (11.5) | 640 (12.8) | 514 (10.3) |
| 30~39 | 1,626 (11.3) | 773 (10.8) | 853 (11.8) | 826 (8.3) | 391 (7.8) | 435 (8.7) |
| 40~49 | 1,374 (9.5) | 632 (8.8) | 742 (10.2) | 1,318 (13.2) | 617 (12.3) | 701 (14.0) |
| 50~59 | 1,107 (7.7) | 539 (7.5) | 568 (7.8) | 1,077 (10.8) | 500 (10.0) | 577 (11.6) |
| 60歲以上 | 1,143 (7.9) | 500 (7.0) | 643 (8.9) | 1,147 (11.5) | 512 (10.2) | 635 (12.7) |

註 : (  ) 안은 구성비임.
資料 : 農水產部, 『農林統計年報』, 各年度.

〔圖 1〕 年齡構造의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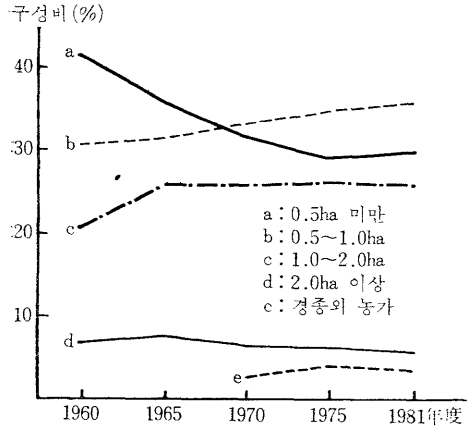



農家人口의 量的減少에 따라 農家人口의 構造도 그동안 많은 變化를 보였다. 〈表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0~81年 사이에 14歲 이하가 農家人口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2%에서 32.6%로 크게 떨어졌고 30~39歲 연령층의 인구는 그 절대수가 약 반으로 줄었다. 또한 같은 기간을 통해 40歲 이상 인구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農家人口가 高齡化하였으며 經濟活動의 中心을 이루는 青壯年層의 人口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 年齡別 人口構造가 30代 이상의 인구층에서 항아리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인다(圖 1 참조).

同期間中 農家人口構造의 또 하나의 特徵은 農家人口의 男女均衡이 20代 人口層에서 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70年에는 同年齡層에서 男女均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981年에는 20~24歲 農家人口中 男子 38萬, 女子 30萬名이며, 25~29歲 年齡層에서는 男子 26萬名, 女子 21萬名으로 農家人口의 심한 男女不均衡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輕工業의 急成長으로 未婚女性 中心의 女性勞動力 需要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農村女性의 大量離農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趨勢가 지속되어 農村地域의 20代 人口層의 性別 不均衡이 더욱 深化되는 경우 農村社會 不安定의 한 要因으로 등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農家人口의 地域別 構成은 1970~81年 사이에 큰 變化를 보이지는 않으나 地域別로 農家人口의 減少幅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農家人口의 減少幅이 상대적으로 높은 地域(地域別 減少率이 全國平均減少率을 上廻하는 地域)은 江原道와 全羅南北道 및 慶尙南北道인 것으로 나타났다(表 3 참조). 全羅南北道와 慶尙南北道의 農家人口의 減少는 各各 相反된 背景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두 지역의 70年代의 經濟構造의 變化가 서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서 農家人口의 減少速度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은 흥미있는 점이다. 他地域에 비해 工業化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慶尙南北道의 경우 鑛工業의 生産比重이 1971~78年 사이에 19.4%에서 33.7%로 변화하였으나 經濟開發이 相對的으로 落

〔圖 2〕 耕地規模別 農家構成의 變化




資料 : 農水産部, 『農林統計年報』, 各年度.

後된 全羅南北道의 경우에는 同期間中 鑛工業의 生産比重이 10.5%에서 16.7%로의 증가에 그쳤다[5]. 또한 慶尙地域에서는 工業化를 통해 耕地面積이 감소되었던 반면 全羅地域에서는 오히려 農地開發에 대한 集中投資로 他道에 비해 耕地面積의 增加가 컸다.

우리나라의 경험과는 달리 臺灣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공업화의 수준과 離農의 程度에 뚜렷한 관계를 찾을 수 있다. 臺灣의 農村工業化에 관한 한 硏究에 의하면 農村地域의 工業化가 보다 빨리 推進된 地域일수록 離農의 幅이 적었다고 한다[6]. 이는 農村地域의 工業化로 非農部門에서의 就業機會가 擴大됨에 따라 農家人口의 一部가 農村에 남아있는 狀態에서 非農部門에 就業함에 따라 工業化가 빠른 地域에서는 工業化가 離農의 防止效果를 招來하였고 工業化가 뒤떨어진 地域에서는 他地域의 非農部門의 就業機會를 찾아 農家人口의 地域間의 移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表 3〉 地域別 農家人口構成의 變化

(단위 : 千名, %)

| | 1970 | | 1981 | | 1981/1970 |
|---|---|---|---|---|---|
| 全 國 | 14,422 | 100.0 | 9,994 | 100.0 | 0.69 |
| 京 畿 | 1,459 | 10.1 | 1,111 | 11.1 | 0.76 |
| 江 原 | 869 | 6.0 | 577 | 5.8 | 0.66 |
| 全 北 | 1,658 | 11.5 | 1,110 | 11.1 | 0.66 |
| 全 南 | 2,678 | 18.6 | 1,818 | 18.2 | 0.68 |
| 忠 北 | 1,023 | 7.1 | 735 | 7.4 | 0.72 |
| 忠 南 | 1,824 | 12.6 | 1,352 | 13.5 | 0.74 |
| 慶 北 | 2,515 | 17.4 | 1,626 | 16.3 | 0.65 |
| 慶 南 | 2,039 | 14.1 | 1,316 | 13.2 | 0.64 |
| 기 타 | 357 | 2.5 | 348 | 3.4 | 0.97 |

資料 : 農水産部, 『農林統計年度』, 各年度.

이러한 現象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地域間의 工業化의 程度가 離農의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것은 工業化가 빠르게 推進된 地域이라 할지라도 工業化가 團地中心으로 이루어져 農村人口의 非農就業이 在村通勤型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脫農, 즉 地域間의 移動으로 可能했기 때문이다.

1960年부터 1981年까지의 耕地規模別 農家構成의 變化가 〔圖 2〕에 提示되어 있다.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0年代에는 耕地規模別 農家構成이 크게 바뀌어 0.5ha미만의 零細小農의 比重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1970年代에는 農家의 規模別 構成이 큰 變化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1960年代를 통해서는 離農이 零細少農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農村의 戶當耕地面積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農村의 平均所得向上과 또한 農村內部의 所得分配改善에도 영향을 미쳤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70年代를 통해서는 規模別 農家의 構成比重이 큰 變化를 보이지 않는다. 0.5ha 미만의 農家比重이 조금 감소하

5) 金鍾基(1981) 참조.
6) Hong-Chin Tsai(1982) 참조.

고 그 대신 0.5~1.0ha 사이의 경지규모 농가의 비중이 조금 늘어난 외에는 1960년대와 같은 큰 변화를 찾아 볼 수 없다. 즉, 1970年代의 離農은 耕地規模와는 밀접한 관계없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1960年代에만 하더라도 農家所得의 絕對水準이 낮았고 특히 零細小農의 경우는 農家所得만으로는 生計가 어려워 大都市의 所得 및 就業機會를 찾아 떠나는 離農이었다. 그러나 1970年代에는 政府의 積極的인 農家所得支援政策으로 農家의 所得水準이 향상되고 都·農間의 所得隔差도 크게 감소됨에 따라 子女敎育 등 所得 이외의 變數들이 離農을 決定하는 主要因으로 作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7].

本稿에서 具體的인 檢證을 거치지 않고 1970年代의 農家所得支援政策이 零細小農의 保護를 통해서 이들의 離農을 억제하였다고 단정적인 結論을 맺기는 어렵다. 그러나 農業의 長期的인 政策目標가 營農規模의 擴大를 통한 自立基盤의 造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970年代의 離農現象은 長期的인 政策目標와는 상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앞으로 離農을 포함한 農業政策의 構想에 있어 이러한 문제가 보다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指摘되어야 하겠다.

## Ⅲ. 經濟活動과 就業構造의 變化

### 1. 農家經濟活動「패턴」의 變化

앞서 檢討된 農家人口의 時系列 資料에 의

〈表 4〉 農家經濟活動人口와 參加率

(단위 : 千名, %)

| | 14歲以上 農家人口 | 男子比重 | 經濟活動 人口 | 經濟活動參加率 | | |
|---|---|---|---|---|---|---|
| | | | | 全體 | 男 | 女 |
| 1965 | 8,985 | 48.3 | 5,233 | 58.2 | 76.8 | 41.0 |
| 1966 | 9,006 | 48.1 | 5,279 | 58.6 | 76.4 | 42.1 |
| 1967 | 8,843 | 48.6 | 5,195 | 58.7 | 75.7 | 43.1 |
| 1968 | 8,739 | 48.0 | 5,256 | 60.1 | 75.5 | 46.0 |
| 1969 | 8,601 | 48.3 | 5,259 | 61.1 | 76.8 | 46.5 |
| 1970 | 8,540 | 47.0 | 5,198 | 60.9 | 75.2 | 48.2 |
| 1971 | 8,283 | 48.3 | 5,094 | 61.5 | 75.0 | 48.9 |
| 1972 | 8,447 | 49.3 | 5,408 | 64.0 | 74.5 | 53.8 |
| 1973 | 8,744 | 49.8 | 5,682 | 65.0 | 75.0 | 55.0 |
| 1974 | 8,984 | 49.5 | 5,773 | 64.3 | 75.3 | 53.4 |
| 1975 | 9,054 | 49.4 | 5,673 | 62.7 | 73.8 | 51.8 |
| 1976 | 9,128 | 49.6 | 5,914 | 64.8 | 74.5 | 55.3 |
| 1977 | 9,023 | 49.4 | 5,709 | 63.3 | 74.3 | 52.5 |
| 1978 | 8,734 | 48.5 | 5,585 | 63.9 | 74.5 | 54.0 |
| 1979 | 8,492 | 48.8 | 5,402 | 63.6 | 73.5 | 54.2 |
| 1980 | 8,269 | 49.0 | 5,169 | 62.5 | 72.4 | 53.0 |

資料 :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各年度.

7) 都市勤勞者家口에 대한 農家의 所得比率은 1967年의 59.8에서 1974年 104.5로 증가됨. 朱鶴中(1981) 참조.

하면 農家人口가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表 4〉에 나타난 經濟活動人口年報에 준한 14歲以上 農家人口는 그와 같이 빠른 減少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비록 두 推計値가 같은 農家에 대한 定意를 使用하고 있지만 農家標本設定이나 推定方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農家人口의 絶對値에 대한 變化는 農水産部의 推計에서 더 큰 標本이 사용되고 있어 資料의 신뢰도가 높으나 經濟活動樣態에 대한 變化는 同資料를 使用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8].

1970年代 全般을 통해 農家의 經濟活動人口의 크기는 큰 變化를 보이지 않는다. 1976年을 전후로 經濟活動人口가 最高水準에 달했으나 그후 계속 감소하여 1980年에는 1970年과 같은 水準에 이르렀다. 이렇게 農家의 經濟活動人口가 1976年을 前後하여 頂點을 이루는 것은 14歲 以上의 農家人口와 經濟活動參加率이 동시에 1976年을 前後로 頂點을 이루기 때문이다.

農家의 經濟活動參加率은 男女 全體를 볼 때 1960年代보다 1970年代에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는 農家人口가 減少함에 따라 부족한 일손을 補充시키기 위해 主婦, 老齡者 등이 더 큰 比率로 營農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農家의 經濟活動參加率을 男女別로 보면 男子의 경우는 1970年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女子의 경우에는 1960年代에 비해 1970年代에 보다 큰 폭으로 增加되었다. 이는 男子의 경우 經濟活動參加率이 相對的으로 낮은 高齡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青少年層의 就學率 특히 高等學校 進學率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연유한다. 女子의 경우에는 앞서 指適한 바와 같이 農家의 일손 부족이 主婦, 老齡女性人口에 의해서 메워져 經濟活動參加率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9].

〈表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0~80年 사이에 經濟活動人口의 年齡別 構成이 크게 바뀌어 40代 이상의 比重이 男子의 경우 40%에서 55%로, 女子의 경우는 37%에서 57%로 변해 高齡者의 比重이 특히 女子의 경우에서 크게 높아졌다.

都市와 農村人口의 經濟活動參與率은 男子의 경우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女子의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980年의 都市人口의 經濟活動參與率은 男子 74.2%, 女子 36.1%로 農家女子의 經濟活動參與率이 都市女子보다 크게 높다. 물론 農村과 都市의 經濟活動「패턴」이 서로 달라 참여율의 절대치 비교가 큰 의미를 지니기는 어렵지만, 農村女性이 都市女性에 비해 家事, 營農 등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表 5〉 農家經濟活動人口의 構成變化

(단위 : 千名, %)

| | 1970 | | | 1980 | | |
|---|---|---|---|---|---|---|
| | 計 | 男 | 女 | 計 | 男 | 女 |
| 合 計 | 5,198 | 3,020 | 2,178 | 5,169 | 2,933 | 2,236 |
| 14~19歲 | 15.8 | 14.9 | 17.0 | 7.0 | 7.1 | 6.9 |
| 20~29歲 | 19.3 | 19.1 | 19.6 | 18.4 | 20.6 | 15.5 |
| 30~39歲 | 25.3 | 25.5 | 24.9 | 18.5 | 17.7 | 19.6 |
| 40~49歲 | 20.6 | 20.5 | 20.6 | 26.8 | 24.9 | 29.3 |
| 50~59歲 | 13.1 | 13.4 | 12.6 | 19.2 | 18.5 | 20.2 |
| 60歲以上 | 6.0 | 6.5 | 5.2 | 10.0 | 11.2 | 8.5 |

資料 :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各年度.

8) 農家人口推計의 信賴度를 높이기 위하여는 農水産部 및 經濟企劃院의 統計에 대한 修正·補完作業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9) 年齡別 經濟活動參加率은 農家人口의 年齡別 分布가 明示되어 있지 않아 推計가 不可能함.

있다.

農家의 經濟活動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과제는 지금까지 農村經濟活動人口의 活用率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즉 農村就業者의 不完全雇傭度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점이다. 農村의 經濟活動人口가 대부분 農業에 종사하고 있고, 農業의 雇傭構造上의 特性 때문에 農村의 季節的 勞動力需要의 變化가 커서 農村의 經濟活動人口의 不完全就業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農村人口의 絶對値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農産物 生産은 점차 증대하고 있어 農村의 勞動生産性이 점차 높아지고 따라서 農村의 不完全雇傭度가 줄어들고 있을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植付構造의 變化도 勞動力의 需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營農構造는 傳統的으로 米麥을 中心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70年代 中盤부터는 農家所得增大를 위한 現金作物의 生産이 政策的으로 積極誘導되어 채소류 등의 生産量이 크게 增加하였다(表 6 참조). 米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손이 많이 要求되는 채소류 등의 現金作物의 栽培가 증가함에 따라 영농작업시간이 증가되었다.

〈表 7〉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農林漁業의 就業者 중에서 週當平均 17時間 미만을 就業하는 사람의 비중은 1970年代를 통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週當 平均 36時間 이상 就業者의 比重도 1970年의 70%에서 1980年의

〈表 6〉 食量作物別 生産量

(1000m/t, t)

| | 米 穀 | 其他穀類 및 豆薯類 | 菜 蔬 | 其 他 |
|---|---|---|---|---|
| 1971 | 3,997.6 | 2,764.3 | 2,907.7 | 493.7 |
| 1974 | 4,444.9 | 2,455.0 | 2,975.5 | 679.7 |
| 1977 | 6,005.6 | 1,964.3 | 6,115.1 | 772.8 |
| 1980 | 3,550.3 | 1,786.0 | 7,190.3 | 840.4 |

資料：農水産部,『農林統計年報』, 各年度.

〈表 7〉 就業時間別 就業者數의 構成

(단위：千名, %)

| | 總就業者 | 1～17時間 | 18～26時間 | 27～35時間 | 36～44時間 | 45～53時間 | 54時間以上 |
|---|---|---|---|---|---|---|---|
| 1970 | 4,916 | 423(8.6) | 581(11.8) | 538(10.9) | 1,314(26.7) | 895(18.2) | 1,150(23.4) |
| 1975 | 5,425 | 282(5.2) | 435( 8.0) | 564(10.4) | 1,283(23.6) | 1,027(18.9) | 1,834(33.8) |
| 1980 | 4,658 | 34(0.1) | 406( 8.7) | 548(11.8) | 1,377(29.6) | 942(20.2) | 1,348(28.9) |

資料：經濟企劃院,『經濟活動人口年報』, 各年度.

〈表 8〉 年間 農家勞動投下時間의 變化

(단위：時間)

| | 總 時 間 | 家族勞動 | 雇傭勞動 | 품 앗 이 | 營農從事者 1人當時間數 |
|---|---|---|---|---|---|
| 1968 | 2,121.9 | 1,623.7 | 442.4 | 146.8 | 688.7 |
| 1970 | 2,154.8 | 1,621.1 | 363.2 | 170.5 | 681.9 |
| 1973 | 2,059.9 | 1,580.2 | 332.3 | 147.5 | 652.7 |
| 1975 | 1,708.5 | 1,309.8 | 295.4 | 103.2 | 561.3 |
| 1978 | 1,700.1 | 1,307.4 | 287.4 | 105.3 | 599.5 |
| 1980 | 1,814.0 | 1,440.6 | 202.4 | 171.0 | 659.8 |

註：營農從事者 1人當 勞動投下時間은 家族勞動과 雇傭勞動時間의 合을 農家戶當平均營農從事者數로 나누어 낸 숫자임.

資料：農水産部,『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各年度.

80%로 증가하여 農林漁業 就業者의 不完全雇傭度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經濟活動人口年報』에 나타난 資料를 檢證하기 위하여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에 나타난 農家戶當 平均勞動投入時間을 檢討한 結果가 〈表 8〉에 나타나 있다[10]. 表에 나타난 바로는 成人換算時間으로 표시된 農家의 戶當平均勞動投下時間은 1970年代 중반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1970年代 후반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營農從事者 1인당 勞動投下時間數도 비슷한 형태로 變化하여 1980年에는 1인당 연간 약 660시간 정도의 勞動投荷가 이루어지고 있다[11]. 勞動投下時間數를 통해 표시되는 農村의 不完全雇傭度는 1970年代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의 勞動投下時間數는 男子成人換算時間數로서 20~55歲 男子의 勞動時間을 1로 하고 同年齡의 女子는 80%, 老齡者 및 20歲 미만은 60% 등으로 각각의 勞動投荷時間을 성별, 연령별로 남자성인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지금까지 農村勞動力構成의 큰 특징이 老齡者 및 부녀자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970年 중반 이후부터 1人當 成人換算時間 勞動投荷量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함은 영농종사자 1人當 실제 勞動投荷時間數가 훨씬 크게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表 8〉에 나타난 結果도 農村의 不完全雇傭度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10) 農家經濟調査는 全國의 225個 地域의 3,375戶의 農家에 대한 標本調査임.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査報告結果』 참조.

11) 1人當 勞動投下時間數는 품앗이時間數를 제외한 營農投下時間을 雇傭勞動을 包含한 家口當平均營農從事者數로 나눈 것임.

12) 農業所得이라 함은 農作物生產에서 發生하는 모든 所得을 의미하며 과수, 야채 등 모든 農作物生產에 관련된 農家의 副業所得도 이에 포함.

## 2. 農家의 就業構造

우리나라 農家의 所得構造는 臺灣, 日本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農業構造를 갖는 東北亞國家들의 農家所得構造와 달리 農業所得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12].

〈表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農家所得中 農外所得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서 1981년에는 총 소득의 3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臺灣, 日本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農外所得의 증가는 주로 財產被贈收入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非農部門의 就業에 의한 勞賃收入의 比重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臺灣, 日本의 경우에는 農外所得의 대부분이 勞賃所得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農家所得構造가 農業所得에 의존하는 理由는 農村地域에 農業外의 就業機會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表 10〉에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에 의한 農家家口員의 就業形態가 제시되어 있다. 表에 의하면 1980年에는 調査農家의 平均家口員數가 5.11名이며 이 중에서 營農從事者가 2.49名, 非營農從事者가 0.13名으로 農家家口員의 非農就業이 극히 低調하다. 農家就業形態를 營農規模別로 檢討하여 보면 먼저 所有耕地面積 0.5ha미만의 營細農의 경우 戶當平均 4.33名의 家口員 가운데 自家營農就業 2.04名과 農外就業 0.19名의 就業者를 갖고 있어 大規模營農農家에 비해 農業外就業의 比率이 조금 높다. 이는 零細小農의 경우 農業所得만으로는 生活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다 적극적으로 農外就業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

다[13]. 그러나 零細農의 경우에도 비록 이들이 農外就業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農村地域의 農外就業機會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規模가 보다 큰 農家에 비해 農外就業의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農外就業者를 賃勞動과 俸給者로 나누어 그들의 就業形態를 살펴보면 調査農家全體의 戶當平均 0.13명의 農外就業者 가운데 0.12명이 俸給者이다. 농촌지역에 私企業部門의 就業機會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農外就業의 대부분이 農村地域의 常勤職 즉 公務員, 敎師 등의 公共部門 職種에 就業하고 있으며 賃勞動을 中心으로 하는 工場就業이나 日雇形態의 품팔이 등은 극히 드문 것으로 보인다. 農外就業者 가운데 俸給者의 比重이 높은 現象은 營農規模別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

〈表 9〉 農家所得構造의 國際比較

(단위 : %)

| | 年 度 | 農家所得 | 農業所得 | 農外所得 | | | |
|---|---|---|---|---|---|---|---|
| | | | | 合 計 | 兼業所得 | 勞賃收入 | 財産被贈收入 |
| 韓 國 | 1965 | 100.0 | 79.2 | 20.8 | 3.5 | 8.9 | 8.4 |
| | 1970 | 100.0 | 75.9 | 24.1 | 3.8 | 10.4 | 9.9 |
| | 1975 | 100.0 | 81.9 | 18.1 | 2.5 | 14.5 | 6.2 |
| | 1981 | 100.0 | 67.2 | 32.8 | 2.9 | 10.0 | 19.9 |
| 日 本 | 1980 | 100.0 | 20.0 | 80.0 | 5.7 | 69.1 | 5.2 |
| 臺 灣 | 1980 | 100.0 | 26.4 | 73.6 | 6.2 | 52.2 | 15.2 |

資料 : 韓國開發硏究院, 『農家所得構造改編方案』, 1982.

〈表 10〉 農家家口員의 就業形態

(단위 : 名)

| | 農家家口員 | 營農從事者 | 農業雇傭勞動 | 非營農從事者數 | |
|---|---|---|---|---|---|
| | | | | 賃勞動 | 俸給者 |
| 1970 | | | | | |
| 全國平均 | 5.92 | 2.91 | 0.03 | 0.06 | 0.07 |
| 0.5町步 미만 | 4.95 | 2.44 | 0.02 | 0.15 | 0.06 |
| 0.5~1.0 | 5.66 | 2.73 | 0.00 | 0.03 | 0.09 |
| 1.0~1.5 | 6.50 | 3.25 | 0.02 | 0.03 | 0.04 |
| 1.5~2.0 | 6.88 | 3.38 | 0.07 | 0.00 | 0.08 |
| 2.0町步 이상 | 7.21 | 3.67 | 0.24 | 0.01 | 0.10 |
| 1980 | | | | | |
| 全國平均 | 5.11 | 2.49 | 0.01 | 0.01 | 0.12 |
| 0.5町步 미만 | 4.33 | 2.04 | 0.01 | 0.01 | 0.18 |
| 0.5~1.0 | 4.88 | 2.40 | 0.00 | 0.00 | 0.14 |
| 1.0~1.5 | 5.50 | 2.61 | 0.00 | 0.01 | 0.11 |
| 1.5~2.0 | 5.80 | 2.91 | 0.01 | 0.00 | 0.08 |
| 2.0町步 이상 | 6.19 | 3.24 | 0.11 | 0.00 | 0.08 |

資料 :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各年度.

13) 零細農의 경우 農外就業意思가 積極的임은 農家標本調査에서도 檢證된 바 있음. 崔洋夫 外(1979) 參照.

아 大農이나 小農을 막론하고 農村地域의 農外就業은 俸給者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모내기와 보리수확이 겹쳐 農業勞動力需要가 가장 큰 5~6月에는 특히 大農을 中心으로 일손부족을 메우기 위해 日雇形態의 賃勞動이 活潑하나 年中平均으로 農家單位當 營農에 필요한 勞動力을 雇傭하는 정도는 전체 農家必要勞動力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零細少農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營農規模가 2정보 이상인 大農의 경우에도 戶當 營農從事者 3.24名 중 0.11名이 雇傭勞動으로 나타남을 볼 때 우리나라의 營農이 아직도 自家勞動力에 크게 依存하는 自營獨立營農의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農家家口員의 就業狀況의 變化를 1970年과 1980年을 비교하여 보면 먼저 戶當平均 農家人口의 감소로 自家營農就業者數가 감소하였으나 非營農從事者의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營農을 위한 雇傭勞動은 農村地域의 勞動力減少를 반영하여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규모 농가에서 雇傭勞動에의 의존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非營農從事者의 賃勞動과 俸給者로의 區分이 1970年에는 약 절반씩이었던 것이 1980年에는 賃勞動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1〉 日本의 農家就業構造(1980)

(단위 : 名)

| | 計 | 男 | 女 |
|---|---|---|---|
| 自 農 | 1.07 | 0.46 | 0.61 |
| 自營兼業 | 0.10 | 0.05 | 0.05 |
| 農外俸給 | 0.56 | 0.38 | 0.18 |
| 農外勞賃 | 0.79 | 0.48 | 0.31 |
| 非就業 | 1.86 | 0.72 | 1.14 |
| 合 計 | 4.38 | 2.09 | 2.29 |

資料 : 日本 農林水産省, 『農家就業動向調査累年報告書』, 1981.

日本의 農家就業構造는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의 狀況과 크게 다른 形態를 지닌다(表 11 참조). 1980年 日本農家의 戶當平均 家口員數는 4.38名이며 이 중 農業專業者가 1.07名으로 戶當平均 營農從事者數가 우리나라의 40% 수준이다 .이는 日本의 戶當平均 耕地面積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營農機械化의 발달로 農業勞動力의 需要가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營農從事者의 60% 이상이 女子로서 日本農家의 營農 및 就業形態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日本農家의 경우 農業外部門 就業者의 就業形態를 區分하여 살펴보면 먼저 自營兼業은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被傭者의 比重이 높아 戶當平均 1.35名의 農家家口員이 被傭者로서 農業外部門에 就業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俸給者 또는 常時雇傭 賃勞動者로서 그 비중은 약 절반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日本農家의 就業形態는 要約해서 4人內外의 家族中 1人이 常時 營農從事, 1人 또는 그 이상이 常時農外就業에 임하고 있으며 營農從事者는 男子보다 女子의 比重이 높고 農外就業者의 경우에는 男子의 比重이 더 높다고 하겠다.

農家所得중에서 農外所得의 비중이 75%에 이르는 臺灣의 경우에도 日本과 비슷한 양상의 農家就業構造를 찾을 수 있다. 즉, 1980年 현재 약 90萬의 農家 가운데 10%미만이 專業農家이며 이외에 家口所得中 農外所得이 50% 이상인 第二種兼業農家가 45%로서 農家家口員의 農外就業比重이 큼을 알 수 있다[14].

臺灣의 경우 工業化 初期段階에는 農產物을

14) 위의 통계는 *Basic Agricultural Statistics*, R.O.C. (1982)에 의거함.

원료로 하는 中小規模의 食品加工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따라서 이를 中心으로 하는 農外就業機會가 지역적으로 고루 分布되었으며 이후의 產業化 推進過程에서도 中小企業의 地方分散이 적극 유도되어 農村地域에는 풍부한 農外就業機會가 주어졌다[15]. 臺灣의 產業化過程에서 農業人力의 非農業部門으로의 移動은 상당수가 農村地域內에서의 非農部門으로의 職業의 轉換이었으며 흔히 많은 開發途上國에서 나타나고 있는 大規模人口의 農村에서 都市로의 地域間·職業間 移動은 아니었다[16]. 이는 農村地域에 中小型 工場이 地域的으로 均衡있게 分布되어 在村勞動力에 대한 農業外就業機會가 擴大되었고 따라서 農家人口의 在村脫農形態의 就業이 擴散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在村脫農形態의 就業은 한 硏究에서 具體的으로 檢討되었는바 「카오슝」市의 일부 勤勞者를 對象으로 한 調査에서 農村에 根據를 갖는 勤勞者의 80%가 農村에서 通勤을 하였고 통근수단으로 회사통근버스, 오토바이 등이 흔히 사용되었다고 밝혀졌다[17].

農家就業構造가 在村通勤形 農外就業의 형태로 定着되면서 農業의 側面에서는 營農의 効率性 提高를 위한 單位農家의 營農規模擴大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農家就業形態의 問題點이라 하겠다. 그러나 在村通勤形 農外就業은 몇 가지 肯定的인 意味를 지닌다. 첫째 農外就業者들이 週末이나 休暇期間 또는 農業勞動力의 需要가 「피크」일 때의 一時的인 休職으로 自家農業을 도와 農村地域의 勞動力不足을 緩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農家人口의 地域間 大規模 移動으로 勞動力의 大都市集中이 深化될 때 不況時 解雇된 勤勞者가 都市에 集團定住함으로써 생기는 社會的인 問題를 회피할 수 있어 在村通勤形 就業形態가 不況時의 失業問題에 대한 방파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在村通勤으로 勤勞者의 實生活費가 都市集中의 경우보다 적어 賃金의 急上昇을 어느 정도 緩和하는 作用을 할 수 있다.

### 3. 農家就業構造의 轉換

農家의 所得水準이 1970年代를 통해 꾸준히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都市家口의 所得水準에 비해 열위에 있고 특히 영세소농의 경우에는 농업소득만으로는 획기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農家所得의 增大를 위하여는 農家所得構造의 改編이 필요하며 따라서 農家의 就業構造도 轉換되어야 할 것이다[18]. 지금까지 검토한 日本·臺灣 등의 農家就業構造를 감안할 때 農家就業構造의 改編을 위해 先行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農村地域에 非農就業機會가 擴大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工業化가 몇 개의 成長據點(growth pole)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就業機會도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成長戰略은 地域間의 심한 불균형을 招來하였을 뿐아니라 나아가서는 農家의 就業構造에도 영향을 미친 結果가 되었다. 農村의 就業構造轉換을 위해서는 2, 3次 產業의

15) 臺灣의 農村工業化에 대해서는 Hong-Chin Tsai 前揭書에 상세히 論議되어 있음.
16) Water Galenson(1979) 참조.
17) Rong-I Wu(1976) 참조.
18) 農家所得構造改編의 當位性에 대한 보다 具體的인 論議는 韓國開發硏究院, 『農家所得構造改編方案』(1982) 참조.

就業機會가 農村地域에 고루 分布되어 農業으로 부터 非農業으로의 移動이 地域間의 移動을 수반하지 않고 在村脫農通勤型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農家家口員의 就業構造轉換을 農閑期의 有休勞動力의 活用이라는 次元에서 季節的인 農外就業으로 유도하기보다는 農家家口員의 일부가 年中 계속하여 常勤形態로 農業外 部門에 就業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즉 農家就業構造의 轉換이 家口員全體의 季節的 就業轉換보다 家口員 一部의 農業 및 農業外 部門의 年中 就業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企業의 입장에서 農閑期에만 勞動力利用이 可能하다면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는 農村地域에의 工場設立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農業勞動力需要가 계절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狀況에서는 위에 提示된 바와 같은 農家就業構造의 轉換은 크게 제약을 받는다. 〈表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

〈表 12〉 農家勞動投下量 月別指數

| | 月平均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月平均勞動投下時間 |
|---|---|---|---|---|---|---|---|---|---|---|---|---|---|---|
| 1966 | 100 | 33.1 | 34.1 | 70.5 | 99.9 | 102.9 | 190.2 | 152.0 | 102.3 | 88.5 | 141.4 | 129.9 | 54.7 | (213.04) |
| 1970 | 100 | 44.6 | 18.6 | 61.6 | 90.8 | 99.1 | 189.3 | 161.8 | 108.1 | 81.6 | 154.6 | 135.3 | 54.5 | (179.6) |
| 1975 | 100 | 40.7 | 21.5 | 76.7 | 82.4 | 104.4 | 212.9 | 139.7 | 110.3 | 103.2 | 180.5 | 82.2 | 45.5 | (142.4) |
| 1980 | 100 | 40.1 | 40.4 | 67.5 | 86.9 | 127.7 | 214.4 | 121.4 | 98.1 | 94.1 | 161.3 | 101.8 | 46.4 | (151.2) |

資料：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各年度.

〈表 13〉 韓·日間 農林業就業者의 季節集中度

(단위：千名, %)

| | | 年中平均 | 3 月 | 6 月 | 9 月 | 12月 |
|---|---|---|---|---|---|---|
| 韓 | 1970 | 4,826 | 84.6 | 138.1 | 117.7 | 59.5 |
| | 1975 | 5,123 | 92.8 | 136.5 | 114.2 | 56.5 |
| 國 | 1981 | 4,560 | 97.0 | 130.4 | 116.6 | 56.1 |
| 日 | 1970 | 8,423 | 87.3 | 121.2 | 110.2 | 74.4 |
| | 1975 | 6,177 | 89.8 | 114.9 | 113.5 | 78.7 |
| 本 | 1979 | 5,677 | 91.2 | 116.6 | 108,7 | 81.4 |

資料：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日本 農林水產省, 『農林水產省統計表』, 各年度.

〈表 14〉 農家千家口當 農用動力機械 保有現況(1980)

(단위：臺/千家口)

| | 耕 耘 機 | 動力防除機 | 移 秧 機 | 收穫結束機 (바인더) | 收穫脫穀機 (콤바인) |
|---|---|---|---|---|---|
| 韓 國 | 13.7 | 153.9 | 5.1 | 6.3 | 0.6 |
| 日 本 | 906.1 | 721.8 | 374.6 | 347.4 | 189.6 |

註：日本의 動力防除機는 1981年 所有臺數임.
資料：農水產部, 『農林統計年報』, 1981.
日本 農林水產省, 『ポケット農林水產統計』, 1982.

리나라 農家의 勞動投下量은 季節的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6月과 10月에 노동투하시간이 가장 크다.

資料의 便宜上 農林業 就業者數에 의하여 農業勞動力의 季節集中現象을 살펴보면 〈表 13〉와 같다. 우리나라는 農繁期와 農閑期에 勞動投入量의 變動이 심하여 年平均 就業者數의 30~40%가 가감된다. 1981年의 경우 6月의 就業者數는 年中平均値의 130%이고 農閑期인 12月은 56%에 불과하여 12月에 비할 때 6月 勞動力은 232%가 集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農繁期인 5月에는 6月보다 勞動力集中度가 훨씬 深化될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年度에 따라 조금씩 緩和되고 있으나 그 幅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勞動力需要의 季節變化가 그리 심하지 않다. 〈表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6月의 就業者數는 年中 平均의 120%, 12월은 80% 내외이다. 農業勞動力이 減少趨勢에 있고 米穀中心의 生産形態를 취하는 등 營農環境이 비슷한 韓·日間의 農業勞動力의 季節集中度가 크게 다른 理由는 農業機械化의 심각한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表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動力防除機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農家所有 動力機械는 全體的으로 일본의 1% 水準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특히 農業勞動力需要가 가장 큰 파종 및 수확작업의 기계화수준이 극히 미미하여 일본보다 훨씬 큰 계절적 노동수요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 農業就業者의 數는 經濟活動人口年報에 나타난 農林業 就業者數를 의미함. 林業就業者數는 農林業就業者數中에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므로(1974年 특별고용통계의 경우 0.25%정도) 農林業就業者數를 農業就業者로 간주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음.

따라서 農家家口員의 일부를 常勤形態로 農外就業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農業勞動力의 季節的 需要變化를 줄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農業의 機械化 특히 파종 및 수확작업의 機械化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겠다.

## Ⅳ. 農業就業者의 變化와 展望

지금까지 農家人口 및 農家就業構造의 變化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本節에서는 農業就業者의 量的變化와 앞으로의 需給展望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人力政策上의 問題에 대하여 論議하고자 한다.

### 1. 農業就業者의 量的變化

우리나라의 農業就業者數는 〈表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0年代 후반에는 약 460萬名의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1970年代 초반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약 530萬名에 이르렀으며 1976年부터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1年에는 약 450萬名에 달한다[19].

이렇게 農業就業者의 數가 變化하는 가운데 農業就業者가 全體 就業者中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960年代 이후 계속 減少하여 1963年의 60.6%에서 1981年에는 32.5%로 下落하였다.

經濟成長過程에서 農業部門의 勞動力이 非農部門으로 流出하여 農業의 雇傭比重이 점차 감소하게 됨은 흔히 볼 수 있는 現象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現象이 나타남은 위에서 볼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特記할 사항

은 우리나라에서 農業就業者數의 絶對値가 감소하기 시작한 時點은 工業化가 상당히 추진된 단계인 1976年 전후이었다는 점이다.

農業就業者의 數가 위와 같은 變化를 보인 背景을 보다 具體的으로 檢討하기 위하여 農業就業者의 크기를 決定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변수, 즉 수요의 측면에서 生産量, 耕地面積, 營農機械化 등의 要因과 供給測面에서 農家經濟活動人口의 크기와 農家의 就業構造 등을 검토하여 보자.

〈表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農業生産은 그동안 營農技法의 改善을 통해 매년 증가하여 農業生産指數로 볼 때 1965~80年 사이에 約 2倍의 증가를 보였다. 農業生産이 時系列上 上昇一邊度에 있음에 비해 農業就業者數는 1676年을 頂點으로 완만한 포물선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農業就業者數는 總耕地面積의 變化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1970年代를 통해 우리나라의 總耕地面積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表 16 참조). 그동안 급격한 工業部門의 成長과 社會間接資本의 投資擴大에 따른 土地需要의 증대로 農地가 일부 잠식되었으나 農地開發事業의 推進을 통해 새로운 農地의 개발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단위경지면적당 就業者數도 農業就業者의 크기와 같은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營農機械化는 궁극적으로 農業勞動力의 需要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앞서 農家就業의 季節變化를 論議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農業機械化水準은 아직도 영세한 단계에 놓여 있고 특히 農業勞

**〈表 15〉 農業就業者數와 雇傭比重의 變化**

(단위 : 千名, %)

| | 農業就業者 | 雇傭比重 (A) | 農業生産指數 | GNP 比重 (B) | A/B | |
|---|---|---|---|---|---|---|
| 1965 | 4,603 | 56.1 | 59.9 | 35.9 | 1.56 | |
| 1966 | 4,695 | 55.7 | 72.3 | 32.8 | 1.70 | 1.76 |
| 1967 | 4,598 | 52.7 | 66.7 | 28.2 | 1.87 | |
| 1968 | 4,582 | 50.0 | 68.1 | 26.5 | 1.89 | |
| 1969 | 4,687 | 49.8 | 77.6 | 26.0 | 1.92 | |
| 1970 | 4,826 | 49.5 | 76.1 | 25.0 | 1.98 | 1.94 |
| 1971 | 4,758 | 47.3 | 78.6 | 25.1 | 1.88 | |
| 1972 | 5,110 | 48.4 | 80.2 | 24.7 | 1.96 | |
| 1973 | 5,260 | 47.2 | 83.7 | 22.6 | 2.09 | |
| 1974 | 5,304 | 45.8 | 88.7 | 23.0 | 1.99 | 1.98 |
| 1975 | 5,123 | 43.3 | 96.0 | 23.0 | 1.88 | |
| 1976 | 5,323 | 42.4 | 108.7 | 21.8 | 1.94 | |
| 1977 | 5,161 | 39.9 | 113.2 | 20.6 | 1.94 | |
| 1978 | 4,920 | 36.5 | 116.2 | 19.6 | 1.86 | |
| 1979 | 4,642 | 34.0 | 123.8 | 18.6 | 1.83 | 1.97 |
| 1980 | 4,433 | 32.3 | 96.4 | 14.6 | 2.21 | |
| 1981 | 4,560 | 32.5 | — | 16.2 | 2.01 | |

註 : 1) 農業就業者는 農林業就業者數로 나타남.
2) GNP 比重은 水産業의 GNP를 제외한 農業 및 林業의 GNP 對 全體 GNP의 비중임.

資料 :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各年度.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動力의 需要가 가장 큰 파종 및 수확작업에 대한 機械化가 극히 미미한 형편이어서 農業就業者數의 變化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農業機械化는 1970年代 全般을 통해 계속 增加하였음에 반해 農業就業者의 크기는 1976年을 기점으로 포물선 형태로 변화한다는 점은 지금까지 農業機械化가 農業就業者數의 決定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業就業者의 크기는 需要側面에서의 要因變化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農業就業者의 크기를 決定하는 過程은 먼저 全體經濟의 非農業部門의 勞動力需要에 따라 農家經濟活動人口의 크기가 결정되고 農家經濟活動人口 중 농촌의 非農業部門에의 취업자를 除한 部分이 殘餘分으로 農業就業者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단 殘餘分의 형태로 農業就業者의 크기는 정해지며 植付構造, 營農機械化 등의 需要측의 要因變化에 의해 勞動時間數가 변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表 16〉 耕地面積 및 單位面積當 就業者數

(단위 : 1,000ha, 명)

| | 耕地面積 | ha 當 就業者 |
|---|---|---|
| 1965 | 2,256 | 2.04 |
| 1970 | 2,298 | 2.10 |
| 1975 | 2,240 | 2.29 |
| 1980 | 2,196 | 2.07 |

資料 : 農水產部, 『農林統計年報』, 各年度.

〈表 17〉 農家人口 및 就業者比重

| | 韓國 | 日本 | 臺灣 |
|---|---|---|---|
| 農家 人口 比重 | 26% | 20% | 30% |
| 農業就業者比重 | 34% | 10% | 19% |
| | (1981) | (1978) | (1980) |

資料 : 韓國開發硏究院, 『農家所得構造改編方案』, 1982.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農村의 非農業部門의 就業機會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農家經濟活動人口의 크기가 직접적으로 農業就業者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農村地域에 農外就業機會가 많은 臺灣, 日本의 경우에 農家人口 및 農家經濟活動人口의 變化가 直接的으로 農業就業者의 크기를 決定한다고 할 수 없다. 〈表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臺灣·日本의 경우에는 農業就業者의 比重이 農家人口의 總人口에 대한 比重보다 훨씬 낮은 反面에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반대로 나타난다.

## 2. 農業의 人力需給展望

앞서 論議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農業就業者의 數는 全體 經濟活動人口의 變化, 非農業部門 즉 2, 3次產業의 勞動力需要의 變化 등에 큰 영향을 받아 "殘餘分(residual)"의 형태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農業就業者의 크기에 대한 展望은 앞으로의 經濟活動人口 및 非農業部門의 勞動力需要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물론 農業의 立場에서 農業의 生產性向上과 自立基盤의 確立을 위하여는 궁극적으로 영농규모가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상당한 크기의 農業人口의 非農部門 또는 都市地域으로의 職業間, 地域間 移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계산에 의하면 農業부문의 생산비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戶當平均 耕地規模가 7ha內外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20] 그러나 非農業部門으로의 農

20) 韓國開發硏究院, 『農村所得構造改編方案』, 1982. 따라서 約 30萬戶의 農家가 우리나라의 適正農家規模로 推計될 수 있음.

業人口의 移動은 非農業部門의 成長을 통해 離農人口가 충분히 吸收될 수 있도록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離農人口의 대부분이 서울, 釜山 등의 大都市에 집결되는 경우, 短見的인 離農政策의 推進은 大都市人口密集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深化시킬 것이다.

農業部門의 雇傭比重의 變化는 아래와 같은 간단한 模型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農業의 雇傭比重과 生產比重의 比를 $c$라 할 때는 $c$ 經濟成長의 過程을 통해서 일정한 형태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text{즉}\quad c=\frac{\text{農業의 雇傭比重}}{\text{農業의 生產比重}}$$

이라 할 때

$$c=\frac{L_A/L}{Y_A/Y}=\frac{Y/L}{Y_A/L_A}$$

위에서 $L, Y$는 全體就業者 및 GNP

$L_A, Y_A$는 農業就業者 및 農業 GNP

위 式에서 $c$는 總勞動生產性과 農業部門의 勞動生產性의 比率로 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經濟가 農業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 $Y=Y_A$, $L=L_A$이므로 $c$는 1이며, 非農部門이 經濟成長에 따라 점차 확대될 때(여기서 非農部門의 勞動生產性은 農業部門의 일인당 생산성 보다 높다고 가정할 수 있음) $c$는 점차 커지게 된다. 즉 전체노동생산성이 농업의 노동생산성보다 높아짐에 따라 $c$가 1보다 큰 수로 擴大된다.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農業部門의 勞動生產性이 全體勞動生產性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하면 $c$의 크기는 점점 擴大될 것이며 비슷한 속도로 增加하면 $c$는 상당기간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農業部門의 자립은 農業의 生產比重과 勞動比重이 같아질 때 즉 농업노동생산성과 전체노동생산성이 같아질 때를 의미하며 이때 $c$는 다시 1로 낮추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c$값에 대한 變化過程이 〈表 15〉에 나타나 있다. 1965年에는 $c$의 값이 1.5의 水準이었으나 점차 높아져 1970年代에는 2의 水準에서 조금씩 變動하고 있다[21].

앞으로 長期的인 農業의 雇傭比重을 예측하기 위하여는 農業의 生產比重에 대한 展望과 $c$값에 대한, 즉 勞務生產性에 대한 假定이 필요하다. 第5次 5個年計劃에 제시된 바와 같이 總 GNP 및 農業 GNP의 성장이 앞으로 매년 7.5% 및 2.5%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할 때 1992年의 農業生產比重은 약 10%의 수준에 달한다. 또한 앞으로 農業部門의 勞動生產性과 全體勞動生產性의 比率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즉 $c$가 2의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 1992年의 農業의 雇傭比重은 약 20%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c$가 앞으로 점차 커진다면 즉 農業의 勞動生產性의 增加速度가 全體의 勞動生產性보다 낮은 속도로 변화한다면 雇傭比重은 20% 수준을 상회할 것이다[22].

참고로 日本의 경우에는 $c$값이 1960年 이후에는 계속해서 3을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의 勞動生產性隔差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表 18 참조). 또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점은 1970年 이후 $c$값이 조금씩 減少하고 있으나

21) 1969~79年 사이의 全產業 및 農業의 1人當 부가가치 증가율은 각각 6.0% 및 4.2%임.

22) 第5次 5個年計劃에 提示된 部門別 就業者 및 生產에 대한 展望에서 推計된 계획기간 동안의 農業部門과 全體 1人當 生產性 增加率은 각각 4.0% 및 4.8%임.

계속 큰 값을 유지하고 있어 高度成長 水準에서도 農業部門의 自立基盤確立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2年의 농업취업자의 크기를 예측하려면 경제활동인구와 총취업자의 크기에 대한 예측치가 필요하다. 具成烈博士의 한 推計에 의하면 1992年의 우리나라 經濟活動人口의 크기는 약 1914만 정도이며 실업율을 4%로 가정하면 전체 취업자수는 1840萬名이다[23]. 따라서 1992年의 農業部門의 就業者數는 약 370萬名의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며 1982年의 농업취업자수가 456萬名임에 비추어 이는 농업취업자가 1992年까지 매년 약 2%씩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農家戶當 平均農業就業者數는 2.25名이며 앞으로 出生率의 下落으로 인한 農家家口員數의 감소와 農家人口의 農外就業의 增加를 감안할 때 계속 감소할 것이다[24]. 1992年의 農家戶當 平均農業就業者數를 약 2名으로 假定할 때 이는 그 시점에서의 農家戶數가 약 185萬戶를 의미하며 따라서 앞으로 10年동안 농가호수가 크게 감소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25].

지금까지 推計된 몇가지의 예측치는 많은 가정을 前題로 하고 있어 어디까지나 예측치에 불과하지만, 첫째, 1992年傾의 農業就業의 比重은 적어도 20%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것과 둘째, 이에 준해 農家戶數도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農業政策의 長期的인 方向의 構想에 있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앞으로 農業生産性 向上을 위한 營農規模의 擴大가 경제활동인구전망, 농업의 생산 및

〈表 18〉 日本農業의 雇傭 및 生産構造變化

(단위 : 千名, 千ha, %)

| | 農家人口 | 農林業就業者 (A) | 雇傭比重 (B) | 生産比重 (C) | 耕地面積 (D) | B/C | A/D |
|---|---|---|---|---|---|---|---|
| 1955 | 36,469 | 17,150 | 41.7 | 17.2 | 5,683 | 2.42 | 3.02 |
| 1960 | 34,546 | 14,920 | 33.3 | 9.5 | 6,060 | 3.51 | 2.46 |
| 1965 | 29,559 | 11,540 | 24.3 | 7.3 | 6,004 | 3.33 | 1.92 |
| 1970 | 26,595 | 8,420 | 16.7 | 4.6 | 5,796 | 3.63 | 1.45 |
| 1975 | 23,195 | 6,180 | 11.8 | 3.5 | 5,572 | 3.37 | 1.11 |
| 1980 | 21,366 | 5,320 | 9.6 | 3.0 | 5,474 | 3.20 | 0.97 |

註 : B는 농림업의 고용비중
C는 농업의 생산비중

資料 : 日本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省統計表』, 各年度.

〈表 19〉 1992年의 農業部門豫測

| 生産比重 | 雇傭比重 | 就業者 | 農家戶數 | 戶當耕地面積 |
|---|---|---|---|---|
| 10% | 20% | 370萬名 | 185萬戶 | 1.2ha |

23) Sung-Yul Koo(1982) 참조.

24) 具博士의 推計에 의하면 1992年의 郡部 1家口當 平均 가족수는 4.3名, 市部는 3.9名으로 전망됨.

25) 1986年의 耕地面積은 5次 5個年 農林水産業部門計劃에 의하면 220만ha로 제시되어 있어 이 水準이 1992年까지 지속된다면 1992年의 戶當 耕地面積이 1.2ha 水準일 것임.

고용구조전망 등에 비추어 획기적인 농가 호수의 감소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임을 감안하여 몇 개의 農家單位로 하는 協業營農을 推進하여 單位營農의 規模擴大를 꾀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要約 및 結論

本稿에서는 農家人口, 農家의 就業構造, 農業의 雇傭構造 등의 農村의 人力에 관하여 서론에 提示된 몇가지 主要 課題를 검토하였으며 검토의 결과가 의미하는 農村人力에 대한 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要約에 앞서 本硏究를 통해 느낀 바는 農村人口 및 人力에 대한 統計資料가 未洽하여 硏究에 制約이 많았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課題에 대한 硏究가 충분하지 못하여 本稿에서는 提示된 硏究課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미흡하였고 問題의 提起에 그친 느낌이다. 本硏究에서 얻어진 몇 개의 結論과 政策的 意味는 아래와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農家人口는 매우 빠른 속도로 減少하여 農家人口의 比重이 1963~81年 사이에 56%에서 25%로 떨어졌다. 臺灣, 日本 등의 경우에 비록 農業의 就業者比重은 産業化過程에서 크게 減少하였지만 農家人口의 減少는 그보다 늦게 이루어 진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農家人口比重이 農業의 雇傭比重보다 빨리 감소하여 농촌의 季節的인 勞動力 부족현상이 심화되었고 도시의 인구과밀화 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農家의 人口減少와 더불어 農家人口의 構造가 크게 바뀌어 農村人口가 점차 老齡化, 女性化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靑壯年層을 중심으로 한 離農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農村의 自生的인 發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따라서 農村地域의 就業機會擴大를 통해 農業에서 非農業部門으로의 職業間 移動이 地域間의 大規模人口移動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상을 억제하며 동시에 靑壯年層의 離農이 늦추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農村地域의 敎育環境의 改善, 營農後斷者의 育成强化를 통해 農村의 第二世代 育成에 대한 政策的인 配慮가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느 정도의 離農이 계속될 것임에 비추어 營農基盤이 갖추어진 中·大農보다는 零細規模의 限界農이 中心이 된 離農이 유도될 수 있도록 政策的인 配慮가 필요하다.

둘째, 1970年代를 통하여 農家就業者中 週當 18시간 미만의 就業者數가 크게 낮아지고 營農從事者의 年中勞動投下量이 점차 높아져 農家勞動力의 不完全雇傭度가 많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農家人口의 絶對數의 감소, 農業生産의 擴大, 植付構造의 變化 등에 기인하는 것이나 農業에만 全的으로 의존하여서는 農家勞動力의 不完全雇傭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農家의 就業構造와 所得構造가 農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 비추어 農家勞動力의 不完全雇傭의 해소를 위해서는 農家人口의 非農部門으로의 就業을 통해 農家就業構造가 轉換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農家就業構造의 改編을 推進함에 있어 政策的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農閑期農家勞動力의 季節的 活用에 主眼點을 두기 보다는 農家家口員 一部의 常勤 農外就業을 통해 構造改編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勞動力需要의 季節的 變化를 줄이기 위해 모내기, 수확 등의 營農作業에 대한 機械化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째, 우리나라의 農業의 雇傭比重은 1981年 현재 약 32%이며 日本·臺灣 등의 農業就業者와 耕地面積 등을 고려할 때 아직도 상대적으로 많은 勞動力을 흡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農業勞動生産性, 農業 및 經濟成長 등의 여러 變數를 감안할 때 앞으로 10年後 즉 1992年頃의 우리나라 農業의 生産比重 및 雇傭比重은 각각 10%, 20%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의 經濟活動人口와 農家就業構造의 變化를 감안하면 1992年의 農業就業者의 數는 약 370萬 내외, 農家戶數는 185萬 내외의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10年동안 農家의 대폭적인 감소를 통한 營農規模의 擴大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營農規模의 擴大를 통한 農業生産性向上을 몇 개의 農家를 합하여 協業農의 體制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營農單位의 規模擴大를 꾀하는 方法에 대한 보다 具體的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예측이 經濟活動人口 및 非農部門의 성장 등을 감안한 것임에 비추어 앞으로 급진적인 離農政策의 推進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各年度.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65～81.

_____, 『農林統計年報』, 1960～81.

韓國開發硏究院, 『農家所得構造改編方案』, 1982.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5～81.

金大泳·李効求, 『우리나라 人口移動의 特徵, 1965～70』, 韓國開發硏究院, 1976.

金信福, 「農業人力의 需給 및 構造的 變化」, 『行政論叢』, 第19卷 第2號, 서울大學校, 1981.

金鍾基, 「우리나라 零細民의 地域的 分布特性과 原因」, 『韓國開發硏究』, 第3卷 第4號, 韓國開發硏究院, 1981.

尹鍾周, 『農村人口에 관한 硏究』, 서울女子大學, 1974.

朱宗桓, 『農業機械化와 營農組織』, 一潮閣, 1981.

朱鶴中, 「都·農間 所得隔差의 再考」, 『韓國開發硏究』, 第3卷 第3號, 韓國開發硏究院, 1981.

崔洋夫 外, 「農村人力의 農外就業可能性과 就業類型分析」, 『農村經濟』, 農村經濟硏究院, 1979. 12.

日本 農林水産省, 『農家就業動向調査 累年報告書』, 1981.

_____, 『農林水産省統計表』, 1970～80.

_____, 『ポケット農林水産統計』, 1982.

Council for Agricultural Planning and Development, *Basic Agricultural Statistics*, ROC, 1982.

Galenson, Water(ed.), *Economic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n Taiwan*,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1979.

Koo, Sung-Yul, *A Demographic Model for Korea: Long-Term Demographic Prospect*

*and Policy Impacts,* KDI Working Paper 82-01,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2.

Lewis, W.A.,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54.

Slovoda, John E., *The Structure of Metropolitan Centered Migration in Korea (1960~75),* KDI Working Paper 81-02,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1.

Tsai, Hong-Chin, *Rural Industrialization in Taiwan,* Unpublished Working Paper, 1982.

Wu, Rong-I,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Taiwan"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aiwan,* Institute of Economics, Taipei, 1976.